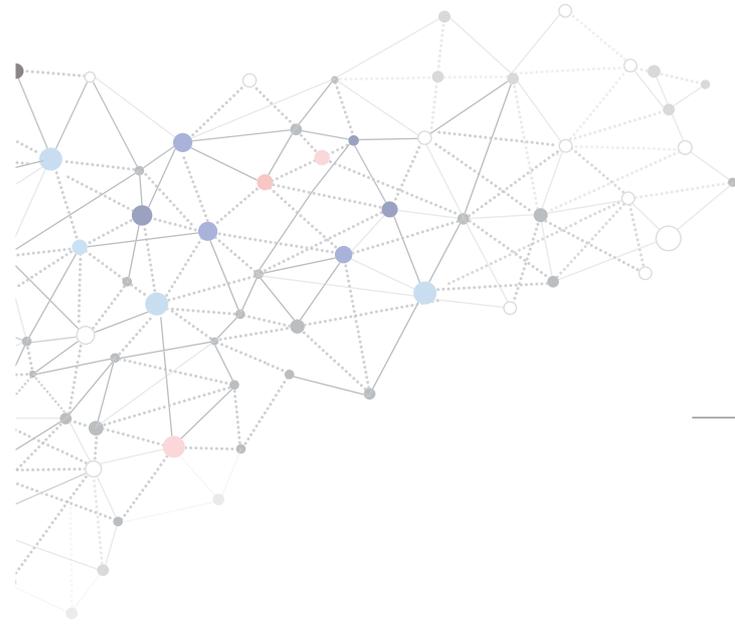




2018년 2월 28일 통권 21호

사회적 경제의 발견



Contents

목차

사회적기업 10년, 아직 갈 길 멀다	1
마을과 사회적 경제, 새로운 상상	5
마을기업이 아이들을 키운다	10
사회적기업 이야기 - 공감만세	14
신간서적 안내 -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19
신간서적 안내 - (ebook) 마을기업 희망 공동체	23

사회적기업 10년, 아직 갈 길 멀다



10년간 30배 넘는 성장, 민간 기반 생태계 조성은 미흡

사회적기업이 한국 사회에 등지를 튼 지 어느덧 10년이 됐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젠 영리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모델로 자리잡았다.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꾸려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질적 도약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됐다.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경제 모델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어디까지나 정부가 키웠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2007년 55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 수는 올해 5월 1741곳으로 늘었다. 10년 전보다 30배 넘게 성장한 것이다. 일자리도 3만8146명으로 15배 이상 늘었고, 이 중 취약계층이 2만3091명으로 6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은 2조원을 넘었고, 5년 생존율은 80.6%에 달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 추진

외적으로는 분명히 성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사회적기업은 자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4년 발표한 ‘사회적기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사회적기업들은 인건비와 운영자금 부족(29.6%)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수익 구조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일반기업이다. SK그룹이 2006년 사회공헌 전문 조직 S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했고, 2008년에는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가 설립한 ‘소풍’이, 2012년에는 정경선 대표가 만든 HGI 등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SK는 카이스트(KAIST)와 협력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창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을 개설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착한 일’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다. <새로운 모색, 사회적기업>이라는 책을 낼 정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방향성은 모두 같다.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오천호 대표(오른쪽)가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이유식 조리공방 생산라인에서 지역 출신의 직원들과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 SK행복나눔재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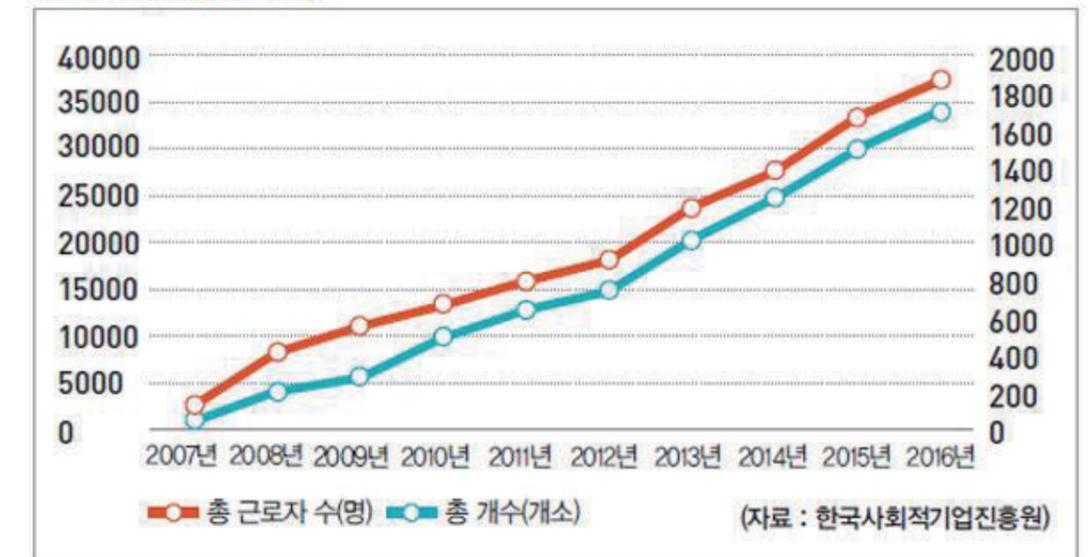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마리몬드’는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공동 주최한 ‘H-온드림 오디션’에 선발돼 투자와 사업 노하우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부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 일대의 먹거리로 사업에 나선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SK행복나눔재단에서 투자를 유치한 후 백화점 입점에도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0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국내 카셰어링 분야에서 1위로 자리매김하는 ‘쏘카’도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다. 자동차 공유경제 모델을 활용해 2011년 설립된 쏘카는 설립 초기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소풍’의 투자를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청년층에겐 여전히 낯설고 인지도 낮아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트렌드, 정보기술(IT) 등과 결합해 문화, 교육, 관광, 보육 등 실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되며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하며 계속 커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층에게 사회적기업은 여전히 낯설고 인지도가 낮다. 아울러 이익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지향하려면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회적기업 성장 추이



변형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최근 열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사회적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에 실패하며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상호 협력과 연대, 자율성이 중요한 사회적경제 영역을 중앙정부 주도의 육성·지원정책으로 이끌어가면서 지원체계는 관료화되고 정부 정책 전달도 수직 계열화로 이어져 지역과 민간에 기반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증제도가 지나치게 ‘취약계층’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세제나 지배구조 같은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려면 영국의 ‘공동체 이익회사’(CIC·Community Interest Company)를 벤치마킹해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 인증 문턱을 넘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를 아우르는 제3의 법인격 모델을 발굴·육성해 사회적 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도 키우자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지속적인 투자 등 세 가지 요인이 조화를 이룰 때 국내 사회적기업 생태계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2017.07.18일자 보도자료

마을과 사회적 경제, 새로운 상상

공동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가능할까?



일터와 삶터가 분리된 근대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터와 삶터는 서로 분리된 공간이다. 공간의 분리는 근대의 기획이다. 마치 낮과 밤처럼 두 개의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논리가 작동한다. 일터는 자본주의적 효율성의 가치로 배치되며, 삶터와 단절된다. 일은 삶으로 인식되지 않고, 삶을 위해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할 수고스러운 행위가 된다. 하지만 삶터 역시 생활의 터전이 되지 못하고 친밀성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공동체는 이 친밀성의 공간을 확장한 것이며, 근대의 기획으로 인해 소외된 삶을 극복하기 위한 가치를 중심으로 인식된다.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후원의 공간이자, 경쟁적 삶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치유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공동체는 여전히 사회의 본류가 되지 못하고, 일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파편화된 배후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계의 역전

이 가능할까? 삶이 일을 위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삶을 위해 배치되는 관계가 가능할까? 사회가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사회에 내포되는 관계가 가능할까? 삶이 전면적으로 펼쳐지는 공간으로서의 공동체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관계성이 만들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란 무엇일까? 사회는 관계 맺기에 의해 형성된다. 그런데 경제 자체가 이미 교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현재의 경제 관계에서는 배제된 관계의 복원, 관계성의 풍부화, 새로운 가치관계의 창조 등을 말한다고 봐야겠다. 경제적 교환관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교환관계의 실현, 사회적 신뢰에 기초한 경제, 또는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어떤 표현이든 친밀함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그 밑바탕을 이룬다. 즉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공동체를 빼놓고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공동체의 본류는 역시 마을이다. 수많은 가치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만, 마을은 다양한 가치와 생활기반을 가진 타인들이 교류하면서도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의 어원인 오이코노미아는 가정관리를 의미한다. 이코노미를 번역한 한자어인 경제는 경제제민을 줄인 말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서 제가라는 말은 씨족공동체였던 마을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저렇듯 경제라는 말은 옛날에는 이윤이나 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두었다.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심이 되지 않고, 돈이 돈을 만들어 내는 물질간의 관계가 기본축이 되었다. 공동체는 내부의 경제 기능을 상실한 채 외부 경제에 종속되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이 관계를 재역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지구화된 경제 체제에서 과연 공동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가 가능할까? 늘 그래왔듯 이상주의자의 꿈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러나 자본주의의 한계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경제, 공동체 경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것이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힘을 가지기도 힘들 것이다.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회고적 관심이라면,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금방 시들해 질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사고하고 실험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게다가 그것은 기존의 토대 위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과 공동체에 대한 꿈이 함께 존재하는 기묘한 상황에서, 이들을 함께 묶어내는 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구호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엿보는 상상을 자극했던 것처럼.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공동체는 대단히 신축적인 개념이다. 작은 마을일 수도 있고, 지구촌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체란 개념을 관통하는 요소는 공통의 연대의식과 호혜적 관계이다(김찬동, 서윤정, 2012).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지역이란 요소는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을 규율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이며, 지역공동체가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의 문제들을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담지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충만함, 욕구의 충족과 통합,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구성원 연대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및 지역사회와 구성원 상호 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호영향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정서적 친밀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성희자, 전보경, 2006).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그리고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또는 헌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경준, 1999).

이처럼 학자들이 말하는 공동체의 구성요소에는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 일체감, 관계지향성, 상호영향의식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예로부터 마을이 경제적 단위로 비롯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지역공동체 역시 경제를 제외하고 사고할 수는 없다. 일터와 삶터가 분리되면서 공동체는 파괴되고, 공동체의 기반인 신뢰 역시 파괴되어 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을 위해서는 마을에서 분리되었던 경제를 다시 품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지역화폐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품은 자본주의 경제 바깥 영역에 있다. 즉 쓸모없는 품이다. 자본주의 경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본주의 기업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품은 죽어 있을 뿐이다. 대학교 아니라 대학원을 나오더라도, 백수로 있는 한 그는 무능력자일 뿐이다. 알음알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만, 교환수단인 법정화폐를 얻지 않고서는 살길이 막막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화폐가 등장하였지만, 아직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상당수의 대안화폐들이 지역화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화폐가 아니라 공동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충남 홍동, 전주사회적경제박람회, 경기 성남, 영국 브리스틀의 지역화폐

체 회원 간의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화폐에 그치고 있다. 지역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조직(기업, 단체)들이 발행하고, 회원이 아닌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는 평판에 기반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평판에 의해 그 화폐의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내는 재화와 용역이 가장 적합하다. 내가 사용한 능력이 세금을 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 또는 수도나 전기를 사용하는데 쓰일 수 있다면 지역화폐의 유통은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현실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처럼 지역 내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우선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한 마을기업에서 발행한 화폐가 여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거쳐 유통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최초에 발행한 마을기업에서 청산될 수 있다면 그 화폐는 지역 경제에 생기를 넣어주고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의 화폐만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다만 화폐 간 교환비율을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다.

기술적 진보가 주는 가능성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은 별개로 진행된다. 오히려 경

제를 화폐관계로 인식하는 바람에 공동체에 경제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마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공동체는 신뢰와 호혜의 관계, 경제는 화폐적 관계로 이분해서 바라본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가 자본주의적 경제의 배후지, 즉 경쟁에서 탈락한 자의 공간, 치유의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고,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위한 실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를 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실험은 한 사람(단체)의 선구적 노력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지역화폐들은 그것으로 얻고자 하는 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잠들고 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실용적인 품들을 얻을 수 있다면 유통이 되지 않을 리가 없다. 이 점에서 최근의 기술적 진보들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지역은 직접 얼굴을 대하지 않더라도 쉽게 평판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장치가 있다. 또한 기술적 진보는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러저러한 번거로움도 아주 쉽게 해결하도록 만든다. 이를 사회적 경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아직 생태계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 좀 더 많은 조직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이 실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역공헌기금을 조성하는 노력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탐구했으면 한다.

글: 김형탁(정의당 부대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작은연구사업으로 만든 보고서 일부를 수정하여 씀

마을기업이 아이들을 키운다

교육협동조합 또래마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육아나 교육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떠올리게 되지만, 실상 현실에서 아이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교육과 직결되어 있다. 이웃집 할머니를 통해 예절을 배우고 구멍가게에서 경제를 배운다. 동네 형들과 놀이터에서 인간관계를 체득하게 된다. 마을의 모든 것이 교육의 장인 셈이다.

하지만 정작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들은 당장 벽에 부딪힌다. 대낮에 집에 돌아온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보금자리를 마을에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교육공동체가 바로 또래마을이다. 정식 명칭은 좀 길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육협동조합 또래마을'이다.

또래마을은 지난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2년차 지원을 받고 있다. 초등방과후학교와 부모커뮤니티 운영을 테마로 하고 있다. 방과후 시설은 많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부모들이 주도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기업까지 하고 있는 곳은 흔하지 않다. 현재 조합원은 20명으로 초등학생 18명이 다니고 있다.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서엄마 양은영(41)씨는 "초등방과후학교 운영이 가장 중심이기는 하지만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자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큰 취지다. 아이를 보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공동체로 키워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4년 전 비영리 방과후 시설에서 출발

사실 또래마을은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운영하던 비영리방과후시설에서 출발했다. 지금과는 달리 교사들이 중심이었고 뜻이 맞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이름도 방과후놀이학교였다. 학교 수업에 대한 공부 보다는 놀이를 통한 교육을 지향했다.

"아이를 처음 초등학교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방과후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게다가 당시엔 1학년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도 많았다. 그렇다고 학원 서너 곳을 돌리는 건 도저히 내키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것이 또래마을이었다."



2011년 당시 그렇게 11명의 아이들로 시작한 또래마을은 2년을 운영하고 마을기업으로 전환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때부터 부모들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살려가자는 취지였다. 이때 도남동 촌집의 터전을 구암동 현재 장소로 옮겨 이사도 했다.

"마을기업 지원이 아니었으며 교육협동조합으로 새 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큰 도움이 됐다. 기존 운영하던 시설이 안전문제 등 공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시설비 지원으로 아이들을 위한 좋은 시설을 마련하게 됐다. 교육, 마을공동체등 마을기업과 맞아 있는 지점도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다."

마을기업 지원 도움 되지만 한계도 많아

다만 마을기업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양 이사장은 "우선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심인데 정작 마을기업 관련 각종 문서처리 등 실무부담이 많다. 게다가 마을기업에 대해 구청이나 시에서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마을에 기반한 기업이라면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고민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문화나 교육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마을기업들이 공통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래마을의 활동은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아이들의 경우 저학년은 목공수업, 요리활동 등 체험이 많고 고학년의 경우 연극활동, 마을탐사, 인문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놀이활동이나 전래놀이는 함께 하고 있다. 방학이면 2박3일의 캠프도 떠난다. 또 현재 성교육 수업을 자체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나머지 갈래는 바로 부모들을 위한 활동이다. 또래마을 조합원이기도한 부모들은 매월 모임을 가지고 강연을 듣거나 책을 선정해 함께 공부도 한다. 매 학년별로 아이들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만드는 것이 꿈

마을기업 대부분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지원이 끝나고 3년차가 되는 내년부터의 전망이 궁금했다. 앞으로 또래마을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 "우선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새로운 수익원도 찾고 조합원도 더 늘어나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운영을 안정화 시키려면 많은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며 또한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중심이지만 이제 아이들이 하나둘 졸업하고 나면 청소년이 된다. 강북지역에 다양한 풀뿌리활동이 많지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마을에서 새롭게 대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강북지역의 방과후교실 세 곳(우리마을학교, 평화로운방과후)이 함께 통합 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매월 공동 부모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중이다. 당장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구하고 향후 맞을 청소년기에 대한 대책도 의논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들 간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월1~2회 공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초청강좌를 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또래마을에 관심 있을 부모들에게 한마디를 부탁한다는 말에 "또래마을은 수년간 운영하면서 축적한 초등저학년 대상의 콘텐츠가 풍부하다. 처음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참여자가 늘어나면 좋겠다. 요즘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직접 참여해 함께 키우는 또래마을이라면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학교만 들어가도 수성구로 전학을 가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이 여전히 대구 강북지역의 현실이다. 굳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더라도 교육은 늘 고민꺼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런 고민과 걱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또래마을이 오랫동안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마을이라면 당장 대안학교는 아니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마을은 돼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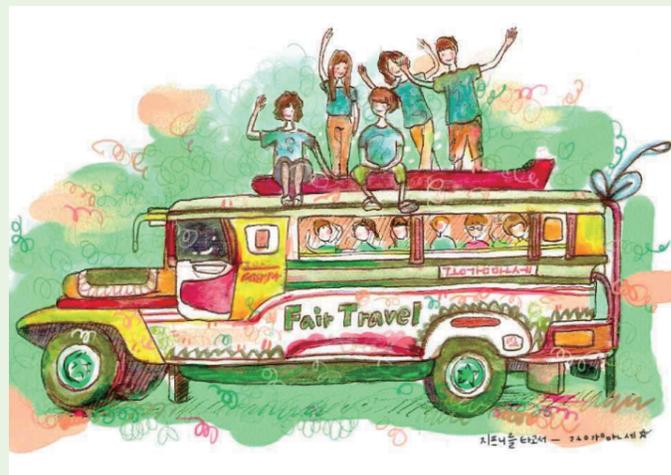
글: 김지형(오마이뉴스)
우리동네 마을기업 이야기 중에서

사회적기업 이야기

- 공감만세 -



공정여행 사회적기업인 (주)공감만세는 2009년, 세상을 가볍게, 쉽게, 그리고 시골법적으로 바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돕고 협력한다는 건 일방적이거나 수직적인 게 아니라, '관계에 기반을 둔 상호 소통'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감동한 청년들이 모여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를 시작했습니다. 공감만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정여행을 다녀왔고, 공정여행가를 발굴했습니다. 공정여행 사회적기업이나 마을을 조성하는 '공정여행가 양성과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공정여행사의 창업과 여러 지역의 마을이 공정여행으로 원주민의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여행으로 세상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이 공정여행으로부터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성구 자원봉사센터가 공감만세 노진호 팀장과 진행한 인터뷰를 인용한 것이다.

Q. 어떻게 공감만세라는 기업을 설립했나요?

공감만세 대표인 고두환 대표님이 대학생 시절, 본인은 실수를 안 하면서 살 수 없다고 느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실수를 하면 받아주는 사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신거죠.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이 공정무역, 공정여행 등이었어요.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공정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해외에 나가 공정여행 사례를 보게 되셨죠. 그 후 한국에서도 공정여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내로 들어와 공부를 하던 중 희망 제작소에서 공감만세를 인큐베이팅 받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대전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Q. 여행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였나요?

일반 패키지 여행을 하다보면, 여행사와 참가자, 여행사와 현지인, 인솔자 간의 불공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여행 산업 안에서도 일어나는 불공정한 관계를 공정하게 해보자. 이런 이유로 공정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 100만원을 필리핀 여행에 소비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필리핀 현지에는 30만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만원은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호텔, 레스토랑 등 일상적으로 쓰는 것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또 여행을 하면서 의도치 않은 환경오염이나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끼치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탄생한 것이 공정여행입니다.

Q. 공정여행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여행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가 아닌 '어떻게'를 먼저 고민합니다. 이 여행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이 여행을 통하여 나는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 하죠.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단체를 찾는 거예요. 공정여행 단체나, NGO 단체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공정 여행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인과 방문객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같이 해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마을 단체는 단순히 YES라고 하지 않아요. 마을에 있는 단체는 마을 주민에게 직접 물어보고 고민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행자 입장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상호적으로 여행지 선정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설정해요. 단순히 보고 먹고 그런 게 아니고 현지 문화를 가장 잘 느끼기 위해서는 현지인과 직접 만남을 가져야 해요. 현지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다든지, 현지인이 다니는 학교를 간다든지, 나무 심기 등 봉사활동을 직접 해보면서 현지인과의 접점을 만드는 거죠. 그 관계에서 배움을 얻는 거죠. 이게 여행 중 활동이라면 여행 전과 끝도 매우 중요해요. 여행가기 전에 꼭 참가자와 만나서 어디를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사전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여행을 갔다 와서는 후속캠프를 합니다. 사실 여행 중에서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갔다 와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공유하는 지리를 갖습니다.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 이렇게 3단계로 여행을 진행합니다.



Q. 원주민을 직간접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지인 단체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마을 주민을 고용합니다. 원주민을 가이드로 고용했을 때 원주민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죠. 또 마을 축제를 할 때 마을 주민이 전통 공연을 하는 거죠. 마을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전통 춤을 보여주면서 서로 즐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전통 공연비는 자연스럽게 마을에 남습니다. 최대한 이윤이 지역이나 마을에 남도록 합니다.

Q. 공감만세에서 다른 사람에게 공정여행을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지금도 공정여행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여행하면 주로 휴양을 생각하고 쉬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공정여행도 휴양입니다. 여행을 통해 배우고 새로운 기운을 얻으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정여행을 다녀온 사람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여행이 좋다고 해도, 직접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가 본 사람을 통해 입소문을 내거나, 후원을 통해 후원 여행을 가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다시 후원을 하고 주변사람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공정한 사회가 될까?'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이런 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뤄진다고 믿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건 사실 여행에 나갈 때죠. 현지에 가게 되면 한국 청소년이나 사람이 깨닫는 것을 보면 뿌듯하죠.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 마을과 마을 사람이 변할 때도 보람을 느낍니다. 한 사례로, 필리핀의 농촌 마을에 갔어요. 어르신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집으로 가더니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여행 덕분에 대나무 집이었던 우리 집이 시멘트 집으로 바뀌었다. 정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많은 보람을 느끼지만 일상에서 찾아내는 것에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가치를 좇고 있다는 것을 매일 상기할 때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공정여행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요?

진짜 여행을 하고 싶다면 공정여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유럽을 두 달 동안 여행하면서 유럽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을까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깊게 여행하고 싶으면 공정여행. 자신의 여행을 통해 세상이 좀 더 공정해 진다면 의미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는 여행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말했듯이, 진짜 여행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여행을 통해 세상이 좀 더 공정해지길 바란다면 공정여행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출처] 유성구자원봉사센터의 박주영기자 인터뷰와 공감만세 블로그를 중심으로 재구성됨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useong1365&logNo=22086210273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dh3417&logNo=220907540102>



.....신간서적 안내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착한책가게(발행일: 2017. 8. 25)

좀 더 인간적인 경제를 이루기 위해 세계 협동조합 운동이 펼쳐온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전 세계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 실천적으로 풀어냈다. 저자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모델이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0여 년에 걸친 연구로 이를 뒷받침한다. 협동조합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은 물론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세계 각지의 사례를 총망라하고 있어 협동조합, 나아가 경제 전체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 운동가이자 연구자인 저자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이 경제민주주의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흔히 알려져 있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남미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절박한 현실 속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경제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실천을 증언한다. 에밀리아로마냐의 노동자협동조합과 아르헨티나의 기업회복 운동, 스리랑카 농민들을 중심으로 본 공정무역과 협동조합, 캐나다의 사회적 협동조합, 일본과 인도의 사례 등 경제를 좀 더 인간적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성과

를 소개한다. 대안에 대한 단순한 탐색이 아닌, 협동조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이끌어내기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존 레스타키스(John Restakis)

목차

제1장 거대한 망상

제2장 꿈, 현실이 되다

제3장 이탈리아의 협동경제

제4장 에밀리아 모델과 자본의 사회화

제5장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복지

제6장 일본의 협동조합

제7장 칼리의 딸들

제8장 공정무역과 차의 제국

출판사 제공 책소개

“민주주의가 정치에 바람직하다면 경제에도 똑같이 좋은 것 아닐까?”

협동조합의 역사와 사상, 세계 각지의 주요 사례들을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운동의 관점에서 한 권에 담은 책

좀 더 인간적인 경제를 이루기 위해 세계 협동조합 운동이 펼쳐온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전 세계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 실천적으로 풀어냈다. 저자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모델이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0여 년에 걸친 연구로 이를 뒷받침한다. 협동조합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은 물론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세계 각지의 사례를 총망라하고 있어 협동조합, 나아가 경제 전체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 운동가이자 연구자인 저자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이 경제 민주주의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흔히 알려져 있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남미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절박한 현실 속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경제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실천을 증언한다. 에밀리아로마냐의 노동자협동조합과 아르헨티나의 기업회복운동, 스리랑카 농민들을 중심으로 본 공정무역과 협동조합, 캐나다의 사회적 협동조합, 일본과 인도의 사례 등 경제를 좀 더 인간적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소개한다. 대안에 대한 단순한 탐색이 아닌, 협동조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이끌어내기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의미와 가치는?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몸담고 있으며, 정부 정책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흐름이다.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쌓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우리 사회와 현재의 경제체제에서 어떤 의미와 자리를 차지할지는 모두에게 과제다. 협동조합이 경제주체로서 고유의 운영방식과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고 그 가치를 실현해나가야 하는 시기에 이른 지금, 협동조합 운동의 관점에서 이론과 사상, 세계 주요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현황, 전망을 한 권에 담은 책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는 인간적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운동을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며 종합적으로 조망해볼 기회를 선사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어떻게 경제민주주의를 이루어왔나

이 책은 10여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과거와 현재의 열망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냈다. 협동조합 운동가이자 연구자인 저자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운동이 경제민주주의 운동으로 확대되는 혁명이 세계 곳곳에서 사실상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지금껏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남미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절박한 현실 속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경제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실천을 증언한다. 에밀리아로마냐의 노동자협동조합과 아르헨티나의 기업회복운동, 스리랑카 농민들을 중심으로 본 공정무역과 협동조합, 캐나다의 사회적 협동조합, 일본의 소비생활협동조합과 인도 성매매 여성노동자들의 다목적협동조합 사례 등 경제를 좀 더 인간적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소개한다.

2017년 현재 85개국에 걸쳐 조합원 10억 명 이상이 몸담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저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지속성 있고 강력한 풀뿌리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이상은 조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를 재구성하고 인간적으로 변화시킬 경제 모델의 열쇠”라고 본다. 또한 이 책의 주요 목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중운동이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운동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지금보다 인간적인 경제 및 사회질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누구나 의지

만 있다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현재 안고 있는 가능성과 문제점을 조명한다.

주요 내용과 의의

고전경제학과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대두된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이론과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밝힌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모델, 캐나다를 중심으로 본 사회적 협동조합, 일본, 인도, 공정무역과 협동조합, 아르헨티나 등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에밀리아 모델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 컨소시엄 구축, 법률 및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대표 사례로 이탈리아 주요 산업부문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일본은 소비생활협동조합의 발달로 지자체 선거에서 자체 후보를 140명이나 당선시킨 저력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의 위기 등 오늘날의 사회 현상과 맞물려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빈민여성의 생계수단이 성매매인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 여성노동자들이 만든 다목적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삶과 경제의 주체로 거듭나는지 보여준다, 스리랑카의 경우 농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공정무역의 결합으로 공정무역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선언 후 파산한 공장을 노동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이 300개가 넘으며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 두 장에서는 공동체와 사회 자본의 붕괴, 일과 행복의 의미, 공유지의 비극 논리 비판과 그 극복 사례, 지역 협동의 세계화 전략 등 협동조합의 의미와 미래에 대해 서술한다.

- ★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첫 두 장에서는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역사적, 이론적 쟁점을 제시한다. 역사와 이론에 대한 이해는 대안을 모색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 인간적인 경제를 추구해온 사람들의 이상과 실천 : 앞에서 소개한 사상과 열망이 다양한 사람들과 공동체에 의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시대와 공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좀 더 인간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세히 알려준다. 이들의 이야기에서는 경제체제의 구성,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근본 문제가 매우 생생하고 극적으로 드러나며, 이는 우리 시대 협동조합 운동의 의미와 메시지를 잘 보여준다.
- ★ 오늘날의 사회와 협동조합 운동 : 마무리에서는 이미 우리 주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협동조합 운동의 관계를 다룬다. 인간적인 경제는 건강한 생태계와 비슷하며, 그러한 경제를 만들려면 인간사회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경제조직을 계속해서 창조해나갈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출처: 알라딘 인터넷 문고 <http://www.aladin.co.kr>>



..... **신간서적 안내**

[eBook] 마을기업 희망 공동체

씽크스마트(발행일: 2017. 8. 15)

공동체를 살리는 시리즈 첫 번째 책. 저자는 마을기업이 ‘자발적 참여, 책임경영, 농산어촌 마을의 로컬 콘텐츠’가 어우러져 ‘농촌 공동체 살리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죽어가는 농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마을기업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먼저, 마을기업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이 책은 무조건 귀농을 중용하지 않는다. 마을기업의 사례를 통해, 마을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등을 침착하게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기업의 저력을 높이 사며, 우리 농촌마을을 살리는 대안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귀농 관심자와 귀농인, 현직 종사자, 농촌 관계자 모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제적인 ‘마을기업의 충실한 가이드북’이다.

저자

정윤성

목차

- 1부 왜 마을기업인가
- 2부 지역자원형
- 3부 틈새시장형
- 4부 도농교류형
- 5부 농촌공동체형
- 6부 일본의 마을기업
- 7부 성공하는 마을기업의 6가지 조건

출판사 제공 책소개

마을기업의 오늘과 내일을 제시할 희망 나침반!

2013년, 현재 우리 농촌 마을은 과소화, 노령화로 인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일할 사람도 없고, 아무런 희망조차 없다. 정부는 공여지책으로 농촌을 살리고자,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그 보조금이 오히려 농민의 주체적인 역량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농촌 보조금 횡령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기사를 작성해왔던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길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한국과 일본의 마을기업을 취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마을기업이야말로 농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대안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저자는 마을기업이 ‘자발적 참여, 책임경영, 농산어촌 마을의 로컬 콘텐츠’가 어우러져 ‘농촌공동체 살리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죽어가는 농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마을기업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먼저, 마을기업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및 일

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남 통영시의 동피랑마을을 비롯하여 470개의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의 수는 1200여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마을기업이 잘되는 건 아니다. 이 책은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마을기업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했다. 대표적으로 소개된 우리 마을기업 9곳을 ‘지역자원형’, ‘틈새시장형’, ‘도농교류형’, ‘농촌공동체형’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고, 일본의 마을기업 7곳도 함께 담았다. 이는 마을기업 관계자들의 고민, 문제의식, 사업의 계기, 마케팅 포인트, 위기극복 등의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마을기업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서 다소 생소한 마을기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지막장에서는 우리 농촌의 마을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과 성공하는 마을기업의 6가지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

KBS TV 간판 프로그램인 ‘6시 내고향’은 물론이거니와 방송가에서 쏟아내는 ‘귀농’을 소재로 한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우리 농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불안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귀농을 진지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무조건 귀농을 종용하지 않는다. 마을기업의 사례를 통해, 마을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등을 침착하게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기업의 저력을 높이 사며, 우리 농촌마을을 살리는 대안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귀농 관심자와 귀농인, 현직 종사자, 농촌 관계자 모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제적인 ‘마을기업의 충실한 가이드북’이다.

책속에서 & 밑줄긋기

P.12 :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하는 수많은 풀뿌리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지역의 향토 자산을 일구고 이를 기초로 벌이는 사업이야말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마을기업이야말로 마을의 일자리 창출, 마을 공동체의 형성, 지역 복지의 근간임을 깨닫게 됐다.

P.33 : 마을기업은 마을자원에 대한 재발견이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외부 의존형 발전전략의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마을기업은 쇠락해가는 농촌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재생 모델로서 그 가치와 효과를 높게 인정받고 있다. 동시에 농촌에서 내발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튼실한 동력이다.

P.88 : 나눔푸드의 구성원들은 공적인 목적대로 기업이 운영되지 않을 때는 운영을 중단하

고 자산 전체를 공공성 유지가 가능한 기관, 단체에 기부한다는데 합의를 봤다. 구성원 본인들부터 마을기업을 통해 성장해왔기 때문에 나눔푸드가 마을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알라딘 인터넷 문고 <http://www.aladin.co.kr>>

사회과학연구소

*** 본 저서는 2015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NRF-2015S1A5B8046954)**

2018年 2月 28日 인쇄
2018年 2月 28日 발행
發行人 최영출
編輯人 사회과학연구소
發行處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非 賣 品)